

송구영신, 근하신년

2023년 계묘년(癸卯年)을 힘차게 열어 갑시다!

지난 2022년은 동지들의 지혜로운 단결과 헌신적 실천으로 대학공동체의 퇴보를 힘겹게 막아낸 한 해였습니다. 또한 민주적 전통을 지키면서 대학의 새로운 리더십을 수립하는 일에도 충실히 역할을 도맡아 수행했습니다. 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전합니다.

2023년 새해에는 대학의 위기 극복, 생존을 위한 혁신, 발전 도모라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또한 동지 여러분의 공동체에 대한 깊은 애정과 분투로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은 동지 여러분의 공동체에 대한 피땀 어린 실천이 헛되지 않도록 노동조건을 지키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제18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

새해를 여는 詩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똥단배는 풍량을 맞지 않고는
자신의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아무 고생도 하지 않으면
아무 전진도 하지 못한다

아무 고난도 겪지 않으면
아무 창조도 이룰 수 없다

아무 비난도 받지 않으면
아무 정의도 세울 수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

- 출처: 박노해 시인의 숨고르기[나눔문화]

소식

2022학년도 단체교섭 지연 중...법인, 단체교섭권만 대학에 위임 방학 중 단축근무 실시...단체협약 이행 사항, 12월 26일부터 7주간

2022학년도 단체 및 임금 협약을 위한 교섭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다. 지난 8월 16일 1차 전체회의 이후,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대학 측은 노조의 제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교섭에 대해 법인 측은 전례와 달리 대학 측에 단체교섭권만 위임한 상태다. 노조법상 교섭권과 체결권을 분리할 수 있으나 기존의 방식을 사전 설명 없이 깨고 교섭을 진행하는 것에 노조는 대응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 16일 노조와 대학 측은 3차 노사협의회를 열고 2021학년도 단체협약에 따른 방학 중 단축근무를 12월 26일부터 2023년 2월 10일까지 7주간 실시하기로 했다.

정보

노동조합 조합원 현황_2023. 1. 1. 현재

조합원(A)	휴직조합원(B)	현재 근무(A-B)	비고(전월 대비)
183명	8명	175명	휴직 1명

1월 조합원 祝 생일_무순·양력

김용규	황보미	정진욱	하상진	권주희
신중석	조영국	이은수	박선미	윤석진
김지홍	박재숙	김현섭	박재찬	석정미
김현	임지영	백성일	-	-

1월 주요 사업 계획

일정	내용	비고
1. 3.	정례회의	집행위원회
1. 17.	2023년도 한국노총 정기선거인대회	위원장
1. 18.	정례회의	집행위원회
1. 31.	정례회의	집행위원회
예정	2022년도 단체교섭 진행(실무소위원회 등)	교섭위원

전월 활동 경과

일정	내용	비고
12. 6.	정례회의	집행위원회
12. 7.	직원인사위원회(서면): 휴직	위원장 등
12. 16.	2022-3차 노사협의회: 서면회의	위원
12. 12.	대학 기획위원회	기획부장
12. 20.	정례회의	집행위원회
12. 21.	한국노총 경산지부 운영위원회	위원장
12. 22.	대학노련 대표자회의: 온라인 줌	위원장
12. 30.	노동조합 회보 18-16호 발간: 포털 게시	홍보부

게시판

민원 신고 안내

본교에서 인권, 성희롱, 남녀차별, 괴롭힘, 갑질행위, 부당노동행위, 규정위반 등 불법적, 부당한 행위를 당하시거나 목격하신 분은 노동조합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기구 및 규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자 하시는 분도 노동조합이 함께 하겠습니다.

☎ 053_850_5760~1

☒ 면담신청: 위원장(이철환), 부위원장(이승희), 여성부장(김성옥)

조합원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조합원과 공유하고자 하는 정보, 제언, 노조 및 대학 관련 정책, 직거래 및 물품 양도 등의 의견을 주시면 본 회보에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 홍보부장(최준혁): 053_850_5155